

관문형 광주폴리Ⅳ 프로젝트 본격화

이달 중 기초공사 착수...내년 4월 준공 예정 미디어아트로 발현되는 광주다움 '무등의 빛' 5·18 40주년 맞춰 광주정신 랜드마크 기대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가 추진하는 광주폴리Ⅳ인 관문형 폴리가 이달 첫 삽을 뜨면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로 진입하는 광주통계이트에 설치되는 관문형 폴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면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발신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3월 6일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광주폴리Ⅳ '무등의 빛'은 현상공모 취지에 맞게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빛의

도시로서 '광주다움'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무등산으로 구현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등의 빛'은 광주 소재 김민국(주)나 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가 협업한 작품이다.

의향, 예향, 미향이라는 삼향의 '광주다움'이 빛을 통해 세계 공중체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무등의 빛'은 16차선 도로인 가로 74m에 높이 8m의 무등산 조형물로 형성된다.

서울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방면에는 광주의 상징 무등산의 사계와 낮과 밤, 광주



관문형폴리로 조성되는 4차 광주폴리가 이달 첫삽을 뜨면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의 삼향 등을 담은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송출된다. 무등산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름다움을 이이남 작가만의 차별화된 예술세계로 표현했다.

광주에서 서울로 나가는 방면에는 가로×세로 각각 10cm 규모의 스테인리스픽셀 약 1만6,000개가 설치되는 인터랙티브 파사드를 만날 수 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스테인리스 픽셀이 연출하는 예

술과 자연의 조화로운 풍경이 관문형 폴리의 또 다른 매력일 것으로 기대된다.

4월 한국도로공사 측의 작품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금주 중 한국도로공사 측의 구조 공사 발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이연수 기자

청년한국학 인재 양성 지원사업 공모

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 활성화·차세대 전문가 육성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광주·전남에서 한국학·한문 고전번역 분야를 전공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한국학 혁신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

진흥원은 향후 국역 분야에 다양한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청년들의 진로를 모색함으로써 청년들이 한국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총 8개 팀

이며, 팀당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팀당 참여 인원은 전문가 멘토를 포함해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결과물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을 성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청년한국학을 성원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선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접수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진흥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ayun@hik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03-9614.

/이연수 기자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루이스 빈치게러&유인레 부부 '판타스틱 리얼리즘 그림전'

오는 31일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평론가·극작가·화가로서 호남대 영문과 교수로 역임한 루이스 빈치게러(Louis Vinciguerra)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소설가 임철우, 이승우, 정영문, 김주영 등의 소설을 영문으로 번역출판한 유인레 화가 부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금남로 3가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갤러리에서 열리는 '판타스

틱 리얼리즘 그림전'.

유인레 작가는 "판타스틱 리얼리즘 전통에 입각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판타스틱 리얼리스트에게 있어 예술과 창조과정은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 예술작품이 구현되는 우주창조 과정의 확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아트센터, 중국 계림미술관,

광주 무등갤러리 등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남편 루이스는 2007년 '박문옥 30주년 전국 5대 도시 순회콘서트' 무대디자인을 맡았으며, 2012년 광주항쟁 32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5·18 국립묘지 및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시화전을 가졌다. 같은해 열린 광주전남작가회의 주최 오월문학제에서 자작시를 낭송했다.

유 작가는 광주시정을 비롯해 관공서의 영어 면접관 및 기자회견 영어 통역으로 활동했다. 2016년 5·18기념재단 국제사업부장, 2017년 국제사업 코디네이터로 각종 국제행사를 운영했다. 2018년 광주 아시아포럼과 광주인권상 시상식 번역과 동시통역을 맡았으며, 현재 5·18기념재단 국제연대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연수 기자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공연 국립광주박물관 19일 오후 3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 공연'을 교육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이 공연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신안해저문화재 이관을 기념하는 '박물관 국악 나들이' 마지막 공연이다.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광주광역시장상 등을 받은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 2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 개최된 제27회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정혜빈 명창도 이번 공연에 함께해 더욱 화제다.

먼저 제26회 농악부 대상팀 장호준 등 4명의 신명나는 풍물판굿을 시작으로 제27회 판소리 명창부 대상을 수상한 정혜빈 명창의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을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이외 부채춤, 소고춤, 기악합주, 가야금병창 등이 무료로 공연된다. 문의 062-570-7800. /이보람 기자



정혜빈



대전 극단 아신아트컴퍼니의 마당극 뮤지컬 '청사초롱' 공연 실황 모습.

마당극 뮤지컬 '청사초롱' 광주 상륙

공연장상주단체 교류초청공연...내일 서구문화센터

2019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교류초청공연으로 대전 극단 아신아트컴퍼니의 웰메이드 창작 마당극 뮤지컬 '청사초롱'이 광주를 찾아온다.

아신아트컴퍼니는 대전 중구문화원 공연장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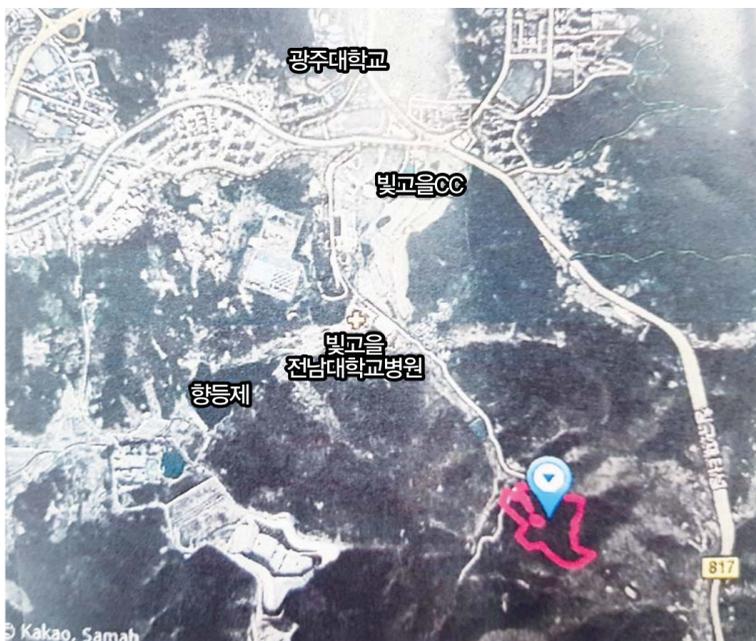
이번에 선보일 마당극 '청사초롱'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과 '봄봄'에 상상력을 덧입혀 만든 아신아트컴퍼니의 우수레퍼토리로서 지난해 창작 이후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동백꽃'의 주인공 '나'와 '봄봄'의 주인공 '나'가 한낱한시 같은 장소에서 각각 혼례를 치르면서 서로 누가 더 힘을 얻는지 겨루는 이야기를 담았다. 순박하기 그지없는 사랑이 혼례에 이르기까지 왜 순탄치 못했는지에 대한 해답도 1920년대 시대적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보람 기자

아신아트컴퍼니는 "이번 공연을 통해 교과서 속 한국단편소설을 '읽는 것'이 아닌 '보는 공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바꾸고 보고자 한다"며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분장과 의상, 풍성한 국악이 어우러지며 아신아트컴퍼니만의 활력과 풍부한 연기력까지 더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16일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무료로 펼쳐지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지역 공연장 활성화와 전문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교류초청공연으로 광주시·광주문화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보람 기자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될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